

■ 버지니아 공대 총기 참사

광주·전남 표정

美 유학생 부모들 “보복 아저나...”

‘버지니아공대 총기참사’ 사건의 범인이 한국인으로 밝혀진 이후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와 이민 가족의 친인척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종일 메신저·이메일... 국제전화 2배 폭증 유학 준비생·연수생·유학원 ‘전전긍긍’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해외과건 근무나 연수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도 불안감에 휩싸여 계획대로 미국행을 강행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고 울상을 지었다. 해외연수를 위해 오는 7월 미국으로 떠날 예정인 공무원 M씨도 “아내, 두 아이와 함께 2년 동안 공부를 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이런 일이 터져 어찌할 바란감에 잠 한숨 못 잤다”며 “어른들은 그나마 적응하겠지만 학교에 다닐 애들이 걱정돼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걱정이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유학 준비생들의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져 한 차례 곤욕을 치른 유학 관련 업체들도 내심 고민이 많다. 현재 광주에는 유학 알선과 어학교육을 함께 하는 곳까지 포함한 10여 곳의 유학 관련 업체가 성업 중이다.

광주 ‘유재이 유학원’ 관계자는 “9·11 사태에도 부모들이 유학을 반대해 애를 먹었다”며 “이번에도 부모들의 반대로 유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특파원 kroh@kwangju.co.kr



광주의 한 유학원 관계자들이 18일 ‘미국 유학의 안전 여부’를 묻는 상담자들의 문의와 전화를 받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결혼 지참금 등 이유 부인 상습 폭행

“240시간 사회봉사 하세요”

광주지법 집유 2년도

5년여 동안이나 교제를 해온 뒤 지난해 1월 결혼한 박모(여·31·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남편 김모(33)씨의 계속된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결혼 전에도 몇 차례 맞았지만, 남편의 성격이 평소 못났던 편이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폭력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계속된 폭행 이유는 ▲집들이 때 친구들 앞에서 헐뜯었다 ▲술대상이 가스레인지 필터를

구입했다 ▲TV를 함께 보지 않고 혼자 책을 본다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지 않는다 등 다양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상한 판사는 18일 남편 김씨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니원침 (7107) 김장두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우리는 3,636 최대단지! [공영형·후수공영 포항의 최고 단지] 수원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계산된 어민 의사

18일 오전 11시께 무안군 현경면 갯벌에서 계를 잡던 나모(여·61)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가출 자금 마련하려 ‘가짜 납치극’

○·고교생이 가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들을 상대로 ‘가짜 납치극’을 벌여 경찰 1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한바탕 소동.

○·18일 오전 5시께 황평에 사는 임모(여·40)씨는 자신의 아들(17)로부터 ‘아저씨들에게 붙잡혀 있으니 돈을 보내줘야 풀려날 수 있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급한 마음에 500여만원의 돈을 계좌로 송금한 뒤 경찰에 신고.

○·경찰은 임군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 형사대를 급파했지만, 무안군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던 임군만 발견됐다.

○/형평=박영진기자 py4079@

붕괴된 소록도 연도교 저가 하도급 시공

심사기준보다 22%P 낮아

지난 5일 발생한 고흥군 소록도 연도교 공사 붕괴사고 구간의 하도급이 저가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건설교통부와 익산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영광·함평)에게 제출한 ‘소록도 연도교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고 구간의 하도급업체인 (주)대창건설의 하도급률은 저가 하도급 심사기준인 82%보다 22.13%포인트나 낮은 59.87%로 나타났다.

사고 구간의 원 도금액이 108억8천200여만원이었지만, 실제 하도급업체인 대창건설이 받은 하도급액은 65억1천500여만원이었다. 이 같은 하도급률은 소록도 연도교 공사의 주관 시공사인 현대건설(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13개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하도급률이다.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하도급업체의 평균 하도급률은 94.45%에 달했다.

특히 공사 발주처인 익산청은 지난

▲하도급률=하도급 계약금액을 시공사의 원 수수료액으로 나눈 비율. 하도급률이 낮을수록 업체는 이윤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가 자제를 사용,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해 6월 ‘하도급계약 검토조사’에 “하도급률이 59.87%로 저가이며 심사 평균이 62점보다 계약변경 대상이지만, 책임감리원 및 지원업무 수행자의 검토의견과 하수급인의 수행 능력을 볼 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익산청 관계자는 그러나 “하도급업체의 재무제표와 실적 등으로 판단할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해명했지만 시공사 측도 “본사에서 부담한 레미콘·철근 등 자재·운송비·폐기물 처리비 등을 포함하면 하도급률은 심사기준보다 높은 83.49%”라고 말했다.

○/서울=임동욱기자 tuim@

동명이인 ‘조승희들’ 인터넷서 봉변

미국 버지니아대학 총기참사 사건 범인이 23살의 한인 학생 조승희인 것으로 밝혀지자 ‘84년생 조승희’들이 인터넷상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싸이월드’(www.cyworld.com)에는 ‘84년생 조승희’로 등록된 회원이 5명 있다. 18일 오후 8시 현재 첫 번째 ‘네티즌 조승희’의 미니홈피는 하루(today) 방문객이 1만8천명을 훌쩍 넘었으며 방명록에 글을 남긴

네티즌은 483명에 달한다. 이 네티즌은 아예 미니홈피 제목을 ‘내가 안 죽었다’로 바꿔놓았다. 네티즌 ‘임정민’은 “동명이인이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밤내세요~”라고 썼으며, ‘박창진’은 ‘이미 범인 사진 다 봤습다. 이번 아니니까만 하시길...’이라고 남겼다. 미니홈피를 당간간 폐쇄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두 번째 ‘네티즌 조승희’의 미니홈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루 방문객 수가 8천 명을 넘었다.

‘84년생 조승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네티즌 ‘임현준’은 “이러다 죄없는 사람 한 명 더 죽일지도 몰라요. 신중



합시다”라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다섯 번째 ‘네티즌 조승희’는 ‘동명이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름 하나 같다는 이유로 여러 수모 당하네요. 아플(나쁜) 댓글과 사칭이 많아 심상 공개 다 봤는데 얍삽한 사람 잡지마시죠”라고 하소연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하나투어' (Hanatu) travel agency,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for Jeju Island, Europe, and other destinations,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promotional offers.